

News

금감원, '라임 전액 배상' 결정 시한 한차례만 연기 가닥

연합뉴스

라임 펀드 전액 배상안'에 대해 판매사들이 수락 여부 결정을 졸졸이 미루는 가운데 금감원이 한 달만 더 답변을 기다리기로 결정... 판매사들이 투자자 보호 및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100% 배상 선례를 남기는 것에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분위기

증권·보험사 빈자리...우리금융 상반기 실적 '뚝'

서울경제

올 상반기 6,605억원의 당기순이익 기록, 전년비 44% 감소...뺏아픈 마이너스 실적을 감수하고 4,500억원의 총당금을 미리 쌓은 만큼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그룹 이익의 80% 이상을 책임지는 우리은행이 초저금리와 코로나19 지원 탓에 힘이 빠졌는데 이를 보완해줄 증권·보험사 등 핵심 계열사가 없다는 약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노골

기업은행 상반기 순익 17% 감소...총당금 적립 ↑

이데일리

2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25.3% 줄어든 3,205억원 기록...상반기 기준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16.7% 줄어든 8,21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기업은행은 2분기에만 5,00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전입...1분기 2,180억원 대비 2배 이상...총 연체율은 0.44%,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18%로 양호한 수준

BNK금융, 상반기 당순익 3109억...전년비 11.5% 감소

이데일리

BNK금융그룹, 상반기 당기순이익(지배지분)이 3,109억원 기록, 전년동기 대비 11.5%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총당금 적립과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행 2분기 코로나 관련 선제적 총당금 적립(255억원)에도 불구하고, 자산건전성 개선에 따른 안정적인 총당금관리로 전년동기 대비 2% 감소한 1821억원으로 기록

10월부터 무·저해지 보험, 만기완료시 환급금 줄어든다

한국경제

무·저해지 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만기시 환급률이 높다고 광고해 불안전 판매 가능성 제기...10월부터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만기완료시 환급률이 일반보험 수준으로 낮아져 금융당국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해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

해약 늘고 투자손실...보험사 실적 '휘청'

아시아경제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신생생명과 오렌지라이프, KB손해보험, KB생명, 하나생명 등 금융그룹 계열 보험사들이 저조한 성적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보험사 실적 부진 현실화...생계가 곤란해지자 보험 가입을 줄이거나 해약하는 사례가 늘어...보험료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금리와 하락하면서 투자부문 손실

금융당국, 이번 주 ELS 규제 예고.. 증권사, 우려 속 공모 러쉬

파이낸셜뉴스

금융위, 이번 주 중 'ELS 건전화 규제 방안'을 발표...당국의 규제를 앞두고 증권사들의 ELS 공모도 잇따라...ELS 본격적인 규제에 앞서 앞다퉈 투자자 모집에 나선 것으로 해석 금투업계 관계자, "코로나19와 맞물려 기존에 은행의 주가연계 신락 등의 판매가 제한된 상황에서 ELS 발행 규제까지 더해져 시장 전망은 한층 어두워졌다"

'아시아나 재실사' 현산 요구 거절할까...채권단·금호 대응 고심

연합뉴스

업계 안팎에서는 현산의 재실사 요구를 '노딜(인수 무산) 명분 쌓기'로 보고 채권단과 금호산업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 산은 관계자는 "현산의 인수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업계에서는 채권단과 금호산업이 현산의 재실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